

(정신대문제 유엔 인권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한 활동)

1.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정신대문제 관련 호소문과 자료문건 보냄. 2월27일, '92
2. U.N 인권위원회에 보냄. 3월4일, '92
3. 5월 7일 부터 시작되는 인권위원회 산하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에서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과 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 이 정신대 문제의 공동제안자로서 제기함. 이회의에 참여하는 10여개의 민간단체에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와 자료를 우송하였음.
4.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U.N인권규약위원회에서 일본이 인권상황의 심의 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위원회를 상대로 정신대문제에 관한 우리의 요구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려는 계획임.
5. 비유럽. 대만. 일본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들과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한겨레신문 5월8일 '92

■ 인터뷰 / 과거 종군위안부 모임 '무궁화자매회' 심미자 회장

“이제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하루에 일본군 20~30명을 상대해야 할 만큼 짓밟힌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이제 더이상 혼자가 아니라 한 자매로 강하게 살아가자는 뜻에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일 발족된 종군위안부물지낸 할머니들의 모임 '무궁화자매회'의 회장 심미자(71·성남 거주·사진)씨는 모임 발족의 뜻을 일흔이 넘는 할머니답지 않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궁화자매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최하고 라이온스클럽 135-K지구 여성분과위원회 후원으로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종군위안부물지낸 할머니들을 위한 경로잔치'에 참석한 16명이 만든 모임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비공개로 경로잔치가 열려 무궁화자매회 발족 사실 자체가 뒤늦게야 알려졌다.

회원 16명은 지난해 8월 김하순(70·서울 거주)씨가 자신이 종군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공개증언한 뒤 정대협에 신고해온 생존자 80여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들

비롯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대협 연구위원, 라이온스클럽 여성회원 20여명과 함께 1박2일을 보내며 자신들의 고통스럽고도 한 맺힌 삶을 털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의 필요성을 제기해 극적에서 모임을 만들었다. 앞으로 생존자 모두에게 문음 열어 두달에 한번씩 만나 남은 생애 동안 서로 위로하며 살고, 짓밟힌 인권회복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고 심씨는 말했다.

45년 일본 패망 뒤 귀국해 숨다시피 살아온 이들이 거의 반세기 만에 한자리에 모여 만나 울음섞인 목소리로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해결되지 못한 낯선 현실에 대한 불만과 배움 비움이라는 생존의 위협에 선 벗어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생활보호대상자 해면 △병원에서 무료건강치료 및 치료받을 수 있는 길 △회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간 마련 등



이렇다고 심씨는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군인·군속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 3월1일 도쿄지방법관소에 '공식사죄 및 1인당 1백만엔 청구소송'을 내기도 한 심씨는 “일본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전후처리에 임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6월1일 열린 이 소송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27일께 출국할 예정이다. (신연숙 기자)